



예산 약 3억 5천만 원

오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한국오리협회·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발생중인 고병원성 AI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전국 오리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AI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오리자조금 사업예산으로 진행된 AI 방역사업은 지난 6월 전국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오리농가 순회교육”과 금번 겨울철 각 지회에서 품목 추천을 받아 오리농가에 지원한 AI 방역물품 지원 사업까지 총 3억7500만 원 수준이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H5N1형 HPAI 발생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오리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게 되었다면서 “야생철새에 의한 HPAI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년에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도 대규모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각 농가에서는 사람 및 차량 출입통제, 축사 내 강화 갈아신기 등 농장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별 지원 방역물품>

지역	물품	지역	물품
경기·강원	PVC 장화	전남	PVC 장화
	손소독제		손소독제
충북	일회용 방역복	경북	PVC 장화
충남	일회용 방역복		일회용 방역복
전북	비닐장화	경남	동계 작업복
	일회용 방역복		일회용 방역복
	발판소독조	종오리장 (부화장)	일회용 방역복
	손소독제		비닐장화
		오리 상하차반	일회용 방역복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제 전환 철회해야”

축산생산자단체장,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 면담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11월 19일(금)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을 갖고, 국방부의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축단협 부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축산생산자단체들은 현행 농·축·수협 수의계약방식인 군 부식료 조달체계를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하였다. 아울러, 축산물 납품방식을 마리당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변경함에 따른 비선호 부위 체화(滯貨), 흰우유 급식기준 폐지에 따른 군장병 전투력 감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리당 계약유지 및 흰우유 급식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생산자단체들은 부실군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급양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전시·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농민(농축수협)과의 협약을 통해 1970년부터 50여 년간 이어 온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 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면담에서 “군급식은 크게 최고 수준의 품질과 국산 농축수산물 이용활성화 원칙에 입각하여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소한 당초 국방부에서 약속한 단계적 농·축·수협 수의계약물량(2022년은 2021년의 70%)은 지켜줘야 한다고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결국 금번 대책은 축산물 수입업자 및 대기업 이권대변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은 요원함을 명심, 식량안보와 장병 건강증진 차원에서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영농신문〉

오리고기 대중화에 앞장서

농업회사법인 주원산오리, 2021 대한민국 소비자만족지수1위 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주원산오리(대표 이우진)가 11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2021 대한민국 소비자만족지수1위'에서 가공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비자만족지수 1위'는 국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미래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우수 기업을 발굴, 선정해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제정됐다. 하림그룹 계열사인 주원산오리는 2008년 업계 최초로 '훈제오리 슬라이스'를 개발해 홈쇼핑에 선보이는 등 오리고기 대중화에 앞장서온 대표 기업이다. 또한 업계 최초로 '짜먹는 오리 슬라이스'를 출시해 건강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식품 소비 패턴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림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오리에도 도입해 2014년부터는 업계 최초로 북미 전역에 판매를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건강한오리' '덕핫도그'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간편 조리 제품을 선보여 다변화를 꾀했다. 주원산오리는 '아스타잔틴(Astaxanthin)'을 생성하는

미생물이 첨가된 사료를 먹고 자란다. 또한 사양관리 매뉴얼을 통해 사육을 시스템화하고, 모든 농가 항생제 잔류 물질 실시간 검사와 자체 방역차량 운행 및 농가 방역 지원, 우수 농가 벤치마킹 시스템 운영 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주원산오리 측은 프리미엄 원료육 시장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오리를 직접 손질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위별로 절단한 다양한 '건강한오리' 제품을 출시해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건강한오리'는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아스타잔틴이 포함된 오리 전용사료로 키운 오리만을 원료로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업체 관계자는 "쿠팡, 마켓컬리 등 성장에 따라 신선 부분육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집에서 더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돼

축산농가들이 그동안 즐기치게 주장해온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7일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이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11월 17일 전국 노동관서에 시달한 이번 지침은 2021년 1월 시행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대책과 관련한 개선(안)을 담은 것으로 사업장 건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어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토록 했다. 이로써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대한한돈협회는 그동안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현장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결국 고용노동부측이 건축법 인용규정을 지침에서 삭제 수용한 것으로 축산현장의 관리사가 외국인 주거시설로 인정받는 등 축산농가의 큰 애로사항이 해결돼 숨통이 트이게 됐다.

<팜인사이트>

변경전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

변경후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

- 다만,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前)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 상 숙소 시설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 허용(어업의 경우 육상양식어업으로 한정)

<관리사 지침 변경 전후>

한강유역환경청, 가축매몰지 환경오염 사전예방

가축매몰지 59개소 등의 관리상태 확인 관리가 미흡한 12개소 적정조치 완료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 예방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1년 3월에서 11월까지 관할지역 (수도권) 내 가축매몰지 59개소 등을 순찰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지난 12월 2일 한강청 관계자는 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20~'21년 조류독감 등으로 수도권에 가축 매몰지 59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57개소는 밀폐형저장조 등 침출수 우려가 적은 방식이다.

관할 지자체는 가축매몰지 조성시 침출수 유출 및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울타리, 배수로, 방충망,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가축매몰지 환경순찰 등을 수행하여 가축매몰지의 밀폐형저장조, 울타리, 배수로 등 시설물들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가축매몰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가스배출관 방충망, 비닐덮개 등의 보완이 필요한 12개소에 대해 점검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지자체는 적정 보완조치를 완료하였다.

가축매몰지 외에도 '20~'21년 조류독감으로 살처분한 사체를 랜더링 처리하고 잔존물을 퇴비화 중인 농장 46개소를 순찰하여 호우시 잔존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 등 조치가 필요한 6개소를 확인 관할 지자체는 적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가축매몰지 환경순찰을 통해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경제〉